

감상에서 소유로...미술장터 '예술산책'

11월 1일까지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청년·신진 작가 74명 작품 200여점
10만원~50만원대 판매...아트숍도 운영

지역 젊은 작가들이 만든 직거래 작가 미술 장터 '예술산책'이 지난해 담양 담빛예술창고에서 열렸다. 50여명의 작가가 200점을 선보인 장터에서는 100여점이 주인을 찾아갔고 4000여만원의 판매금액은 전액 작가들에게 돌아갔다.

작가미술장터는 기존 미술 시장에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적었던 작가들에게 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높은 가격으로 작품 소장이 어려웠던 미술 애호가들이 부담 없이 작품을 소장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후원하는 직거래 아트 마켓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와사비가 주최하는 '예술산책 2-예술이 공존하는 세계'가 오는 11월1일까지 담양군 해동문화예술촌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년작가와 대학졸업 후 이제 막 작품 활동을 시작한 신진작가 74명의 작품 20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서양화가 이인성 작가가 예술감독을 맡은 이번 행사는 전시공간이 3개 건물로 독립된 점을 활용, 건물별로 특색 있는 '지구의 세계', '상상의 세계', '사실의 세계'라는 3개의 색선으로 이루어진다.

작품 판매 가격대를 10만원부터 50만원 사이로 책정, 미술에 관심이 있었지만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작품 구매를 어려워했던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광주·전남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상업 갤러리의 활동이 미흡해 젊은 작가들이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 작품 전시 및 판매 이외에도 다양한 미술관계자를 초대해 젊은 작가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는 고미유, 김성경, 인준호 작가와 독립큐레이터 허유림, 해동문화예술촌 감독과 학예사로 활동 중인 양초롱, 김옥향 등 미술 관계자들의 네트워킹 행사가 펼쳐진다. 지난 14일에는 '지역에서 예술, 상상방안 포럼'이 열리기도 했다.



행사 기간 중에는 아트숍을 운영하고 작가의 미완성된 프린트 작품을 자신만의 색채로 완성해보는 체험 프로그램과 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그밖에 11월1일 오후 5시에는 '구매자가 밝은 인기작가 작품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

한편 행사가 열리는 해동문화예술촌은 오랫동안 주조장으로 사용되던 곳을 리모델링한 문화공간이라 예술촌 구석 구석을 둘러보는 건 또 다른 즐거움이다. 31일(오후 7시)에는 해동문화예술촌의 지원을 받아 '이정주 명장과 함께하는 고품음악회-담빛, 10월을 뒀다'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전시 환경에 맞추어 입장 안내가이드를 제공하며 홈페이지를 통한 작품 감상과 판매투트를 준비했다. 예술산책 홈페이지(<https://takeawalkthroughart.modoo.at>) 참조.

이인성 전시감독은 "예술이 공존하는 세계"라는 큰 주제 아래 복잡하고 다양한 관점의 예술작품들을 관객들이 쉽게 구분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세부 색선을 통해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는 11월1일까지 담양해동문화예술촌에서 열리는 작가 미술 장터 '예술산책2-예술이공존하는 세계' 전에서는 76명의 작가 작품 20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작품은 주로 10~50만원대로 판매되며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담현서실 이목회·제주전각학연구회, 31일까지 관선재 갤러리

'현대 서예와 전각의 만남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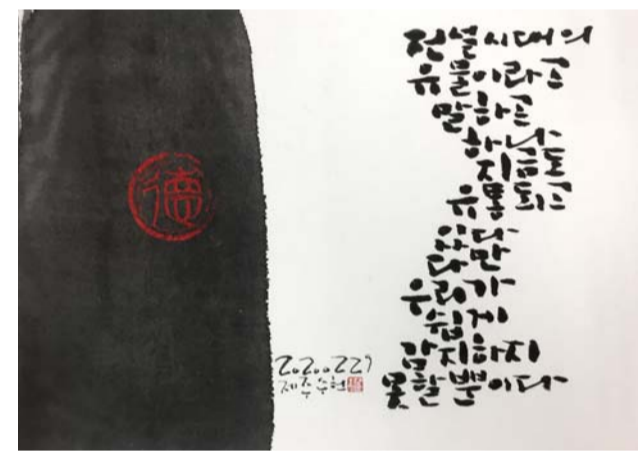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자유분방함을 표현하는 현대 서예와 작은 공간에 우주와 자연, 인간의 삶을 조형하는 전각이 만났다.

'현대 서예와 전각의 만남 II' 전이 오는 31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관선재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담현서실명예회장과 제주전각학연구회 회원들의 모임인 담현서실 이목회(회장 박익정)와 제주 전각학연구회(회장 오장순)가 만나 여는 두번째 교류전이기도 하다. 두 단체는 꼭 10년전인 지난 2010년 첫번째 합동전을 열었다.

이목회에서는 광영숙·김문태·김삼순·김정례·서현표·서현희·유경숙·이주옥·이흥홍·정만우·정문현·조국훈·최태형 회원 등 13명의 회원이 개성 넘치는 현대서예 작품을 선보이며 전명옥 선생도 작품 '설두중현선사승'을 전출출품했다.

제주 전각학연구회에서는 김성훈·김재홍·김지용·김형식·김



오장순 작 '덕(德)'

혜정·박희일·부희경·오장순·조길재 등 11명의 회원이 작품을 내놓았다. 문의 062-225-533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익정 작 '이달 시산사'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광주·전남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